

김수경의 조선어 연구와 일본

— 김수경(1989)에서 읽는 한국 역사비교언어학의 한 모습 —

고영진 (コヨンジン)

金壽卿の朝鮮語研究と日本：

— 金壽卿 (1989) から読む朝鮮歴史比較言語学の一つのあり方 —

日本語要旨

金壽卿は〔1945年の〕解放直後から1960年代中頃まで、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北朝鮮)の理論文法はもちろん、言語規範の確立においても中心的な役割を果たした学者である。それに比べ比較的知られていないことであるが、彼はまた優れた歴史言語学者でもあった。特に本稿で検討対象としている金壽卿(1989)は、韓国の主な歴史比較言語学の根源が植民地期の日本のそれであり、そこで育った木が依然として健在であるという点を明らかにしたという点で非常に問題적이다。のみならず、言語学が当該社会と完全に遊離して研究されるのではなく、意識的にしろ無意識的にしろ、その時、その場所の社会歴史的状況と関連づけて研究されてき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という点はさらに問題적であると言えよう。言い換えると、言語学は時代または社会と遊離したまま「科学的に」研究されることのように見えるが、実はその背後に別のイデオロギーが存在していることを、金壽卿(1989)は具体的な事例を通じて示してくれ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点に鑑みると、彼の研究は歴史比較言語学のみならず、言語と社会の関係についても示唆するところ大であると言える。

1 서론

한국이나 일본에서 나온 대부분의 언어학 개론서들은 언어학을 “언어에 대한 과학적 연구”라고 정의한다. 혹은 그러한 정의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언어 연구란 그 ‘사실’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논의가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연구는 늘 가치중립적임이 전제된 채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본론에서 다루겠지만, “숨 가쁜 역사적 변혁이 닥쳐오거나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될 때는 각 학문 분야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이념적 속성이 겉으로 슬며시 드러나는 경우가 있”(김하수 2008:22)는데, “언어학도 결코 그 예외가 아니었다”(田中克彦 2003:27). 우리는 그 전형적인 예를 한국의 역사비교언어학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바, 본고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김수경(1989)를 읽어 보고자 한다.

2 ‘한일어 동계론’과 그 주변

2.1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1910)

한국어의 계통이 일본어와 같다는 설은 ‘한일합병’을 전후한 시기에 주로 주장되었는데, “L. de Rosny, W. G. Aston, E. H. Parker, J. Edkins 등의 西洋學者와 大矢透, 白鳥庫吉, 宮崎道三郎, 金澤庄三郎, 稲垣光晴 등의 日本學者가 많은 業績을 남겼다. 특히 Aston과 金澤의 勞作은 이 시기의 最大成果였고 白鳥의 語彙比較 또한 적지 않은 業績”(송민 1969:7)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 무렵은 “(비교연구가) 草創期的인 性格을 脫皮하지 못하고 있”(송민 1969:7)기는 했으나 “比較研究에 對한 意慾은 가장 旺盛한 時期”(송민 1969:7)이기도 했다. 그들 가운데에 일본인 학자들은 “語彙比較를 通하여 韓國語와 日本語가 同系인 同時에 兩民族 또한 同族임을 主張함으로써 때마침 일어난 日本의 韓國併合에 對한 政治的 大義名分을 提供하기도 하였”(송민 1969:7)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나자와 쇼자부로의 『日韓兩國語同系論』(1910)은, 영어로도 동시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 일본어와 한국어와의 비교 연구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말해지고 있다(김방한 1983:42-43). 뿐만 아니라 가나자와의 이 글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용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그 제목에서 풍기는 역할을 톡톡히 한 결과, 아래의 다나카 가쓰히코[田中克彦]의 평가에서 보는 것처럼 언어계통론과 침략주의를 논의할 때에는 으레 언급되는 단골손님이 되었다.

(쥘머펠트는)언어의 계통론과 인종주의가 항상 위험한 유착을 야기하고, 음험한 야심으로 이어질 위험을 일본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남 아메리카 정복을 위한 발판을 준비하려고, 일본인들은 고대 아메리카의 여러 문명이 일본에 기원을 가진다는 신화를 퍼뜨리고 있다. 그들은 잉카 문명의 창시자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영토리를 증명하려고, 서적의 간행에 돈을 썼다.

만일 인종주의가 언어계통론에 보강되어, 침략을 도운 예를 든다면, 쥘머펠트는 이러한 정체를 알 수 없는 근거에 입각한 ‘남미정복설’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과 몽골의 예를 골랐어야 했다. 언어계통론과 침략주의의 관계는 언제나 노골적이고 직접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나, 예를 들어 ‘일선동계론’이 대중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

다고 한다면, 이러한 논의가 조선의 식민지화 정책하에서 호의적인 취급을 받을 기회가 많았던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田中克彦 200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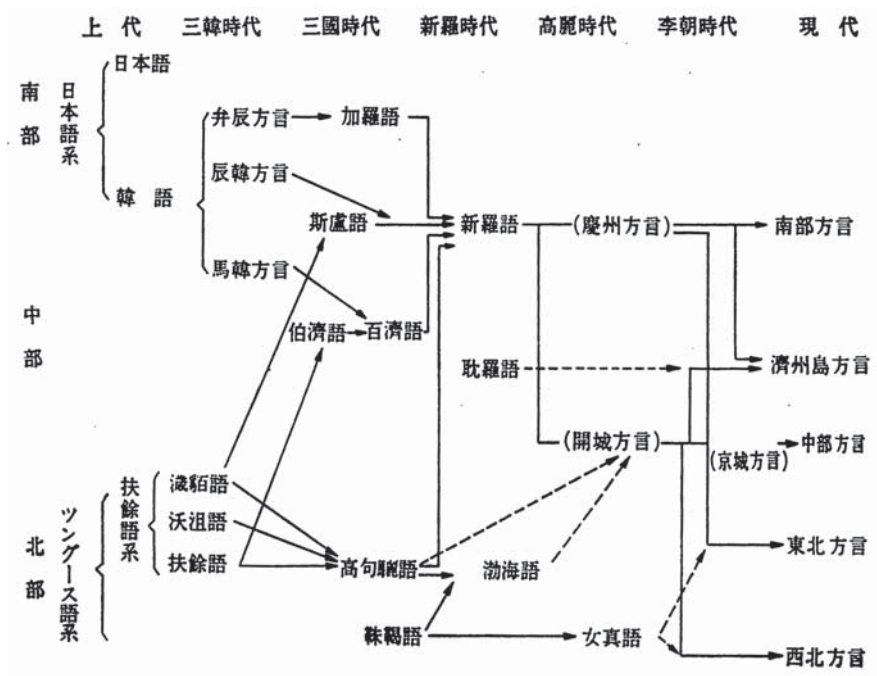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수경(1989:105) 또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일본인 언어학자 가나자와 쇼사부로(金澤庄三郎)의 <<일조량국어동계론>>이 1910년에 간행되었다는 사실 그자체가 우연하지 않거니와 가나자와가 그 책의 서설에서 <<조선의 언어는 우리 대일본제국의 언어와 동일계통에 속하는것으로서 우리 국어(일본어를 가리킨다-인용자)의 일본화에 지나지 않음은 마치 류쑤방언이 우리 국어에서 차지하는바와 같은 관계에 있는것이다.>>라고 쓰고 결론부분에서 <<이리하여 일조량국민 서로 국어(일본어)를 료해하여 마침내 고대에 있어서와 같이 또다시 동화의 실을 이루게 된다면 진실로 천하의 경사라 할수 있을것이다.>>라고 끝맺고있는것을 통해서도 식민지정책수행을 위하여 일본사람들이 얼마나 철면피하게 과학과 진실을 외곡하고있는가를 넉넉히 엿볼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나자와의 주장은 조선에 대한 ‘병합’이 완료된 이후에는 당연히 그 효력을 잃었고, 그에 따라 그의 주장도 잊혀져 갔다. 뿐만 아니라, “1898년에 한일양국어의 유사점 200단어를 들어 일본민족의 한반도 및 대륙 종족과의 밀접한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던 시라토리는 1909년에 두 나라의 언어는 당초의 기대만큼 친밀한 관계는 아니라고 설명했고, 1914년에는 가나자와의 「일한양국어동계론」을 ‘억측, 속단’이라고 비판”(이시카와 료코[石川遼子] 2006:163)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시라토리는 ‘병합’ 이후에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같은 계통이라는 데에서 아예 발을 빼어 버린 것이다. 게다가 “한일합방 직후부터 일조동조론 자체가 중요시되지 않게 되어 교수로 있던 동경외국어학교 조선어학과가 폐지되어 가나자와는 교수직을 사임하게 되”(이시카와 료코 2012:100)는 등, 그의 개인적 처지도 ‘동계론’과 다르지 않게 되었다.

2.2 고노 로쿠로[河野六郎](1945)와 그 이후

가나자와에서 본격화한 ‘한일양국어동계론’은 조선의 식민지화 이후 사라진 것처럼 보였으나,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던 모양이다.



위의 계통도¹⁾는 “말할 필요도 없이 잠정적인 것”(河野 1945/1979:273)이라는 전제 하에 제시된 것인데,²⁾ 위의 그림은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말해 주고 있다. 그중 본고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1) 일본어와 한국어는 계통이 같다.
- (2) 신라의 직접 조상인 사로어와 고구려어는 서로 다른 언어이다.
- (3) 현대 한국어는 신라의 후예이고, 신라어는 사로어의 후예이다.

위의 (1)-(2)에 대해서는 고노의 다음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리하여 오랜 시대의 언어 상황을 고찰해 보면, 남으로는 한어(韓語) 계통의 언어, 동으로는 예어(濊語) 계통의 언어, 동북으로는 옥저 계통의 언어, 그리고 서북으로는 중국어 계통의 언어가 쓰였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서북의 중국어 계통 언어는 漢의 楊雄이 편찬했다고 일컬어지는 『方言』 안에 그 단편이 남겨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방언을 이루며 이 방언이 燕(현재의 河北省)의 방언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밖의 언어와 관련하여 예어(濊語)와 옥저어는 후술할 고구려어와

함께 부여어(夫餘語) 계통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언어 계통에 속하는 듯하다. 이러한 언어 계보에 대해 한어(韓語)가 어떠한 관계에 놓이는지는 오늘날 여전히 불분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어(韓語)가 일본어와 꽤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 같다는 점은 한(韓)의 단편적인 지명에서 추측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고고학상으로 한반도 남부의 석기 시대 유물이 일본의 석기 시대 유물과 유사하다는 사실과 더불어 확실히 흥미로운 바이다.(고노 2012:231-232)

또한 (3)은 ‘①앞의 계통도에서 개성방언은 신라어의 한 방언으로 되어 있는 점, ②고구려어는 발해어로 이어지기는 하나 개성방언과는 고구려어와 발해어 모두 점선으로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고노가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실 또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한반도 북반의 땅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으로는 空白의 상태이다. 그것이 현재의 한국어 성립에 기여한 공헌은 그다지 크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현재의 한국어에 있어 중요한 것은 오히려 한반도 남부이다.(고노 2012:233)

현재의 한국어는 고려를 통해 신라어가 연장된 것이므로, 그 토대는 사료어이다. (고노2012:236)

위와 같은 고노의 주장은 해방 후에도 한국의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컨대 해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간행된 김형규(1953:34)의 “이땅의 先住 민족인 北方 濊·貊·沃沮·高句麗族의 言語를 대표하는 高句麗族의 言語와 南쪽 三韓시대를 지나 百濟를 統一하고 高句麗族을 구축한 新羅語가 대표적인 韓族의 言語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말은 그中 어느 系統의 言語인가? (중략) 나는 오늘의 우리말은 韓族의 言語인 新羅語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北方系 高句麗語는 若干의 자취를 남기고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김수경(1989)에서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기문 교수의 여러 업적들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부 일본어계’라는 고노의 주장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기문(1973b:233)에서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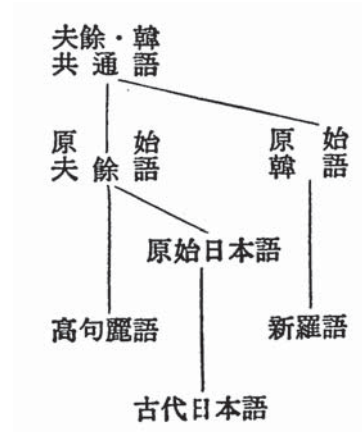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韓國語는 넓게 보아 韓系諸語, 좁게 보아 新羅語를 根幹으로 형성된 것인데, 위의 系統圈³⁾에 의하면 이것은 ‘日本語系’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日本語系’란 말은 河野六郎의 韓國語와 日本語의 同系說의 眞意를 드러내 주는 중대한 증거가 된다. 그는 上古의 三韓을 日本의 言語圈에 속했던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중략) 이것은 日帝 말기의 특수한 狀況 아래서 있었던 일이니 덮어둘 수 있지 않느냐고 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終戰’ 이후에도 日本 學者들 사이에는 이와 같은 思考 方式이 뿌리 깊이 박혀 있음을 우리는 냉정하게 꿰뚫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良心的’이라고 할 수 있는 學者들의 글에서 古代 南韓은 倭의 棲息地였던 것처럼 쓴 것을 가끔 읽을 수가 있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言語學者들은 古代 南韓에 倭의 言語(즉 日本語)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김수경(1989:109)에서는 “리기문교수의 글은 고-노 로꾸로-의 견해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있는것 같으나 실지 그는 여기서 한어를 일본어계라고 한데 대하여, 그리고 고구려어를 통구스어에 소속시킨데 대하여서만 비판하였지 조일동계설이나 조선반도를 남북으로 갈라서 남은 한어계, 북은 부여어계로 한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고있다. 뿐만아니라 바로 그 부분은 그대로 습용해서 자기 <<리론>>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의 비판은 다음 (나)의 계통도⁴⁾에까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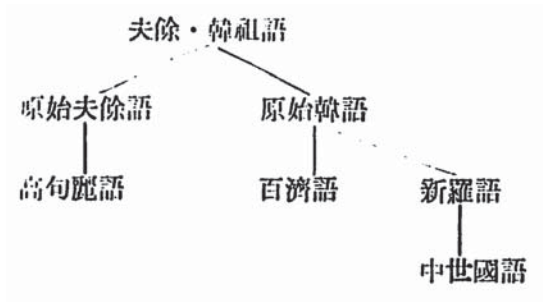
(가) 이기문(1969:89)



(나) 이기문(1969:91)



(다) 이기문(1972:41)



위의 계통도와 앞에서 보았던 고노의 계통도는 비슷한 점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하여 김수경(1989:109-110)은 위의 (나)를 인용하면서 “한어와 부여어를 남북으로 아주 갈라 놓은 점, 그리고 여기에 일본어를 끌어들이는 점에서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다만 일본어의 위치를 한어계로부터 부여어계로 옮겨놓은것뿐”이라고 말한다. 그의 비판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고구려어가 신라어와 다른 언어였다고 하는 그의 주장은 결코 그 어떤 <<독창적>> 연구의 결과로서 나온것이 아니라 지난 시기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본사람들이 그들의 식민지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우리 사람들의 머리속에 깊이 주입시키려고 한 외국 된 조선사관, 비뚤어진 조선어사관에서 해방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그들을 따라가고있는데 그 바탕을 두고있는것이다.

우리 민족과 우리 언어를 부여계니, 한계니 하여 북과 남의 두 부분으로 나누는것 그 자체가 이미 우에서 본바와 같이 고구려의 역사를 아예 조선사의 권외로 몰아내고 우리 민족의 력사와 언어를 왜소화, 빈약화하려는 일본사람들의 간계와 직접 련 결되어있는것인데 리기문교수가 아직까지도 그뒤를 따라 우리 나라와 우리 말의 력사를 그릇되게 묘사하고있는 이 사실은 매우 엄중하고도 유감스러운 일이라 말하지 않을수 없다.(김수경 1989:110)

결국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김수경(1989)에 따르면 ‘①일본어와 한국어는 계통이 같다, ②고구려어와 신라어는 서로 다른 언어이다, ③현대 한국어는 신라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세 가지 주장이 모두 식민지 시기의 고노의 주장에서 유래한 것이고, 그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는 뜻이 된다.

3 김수경(1989)의 배경과 그 시사점

김수경의 이 책은 1989년 5월에 간행되었고, 당연한 얘기지만 집필은 그전에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집필 시기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맞춤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맺음형 <-ㅂ니다>의 우에 과거토 <-았, -었>이 올 때 남에서는 <보았읍니다, 심었읍니다>와 같이 <-읍니다>로 적으나 북에서는 <보았습니다, 심었습니다>와 같이 <-습니다>로 적는다”(김수경 1989:213)는 부분이 하나의 단서가 될 듯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책이 적어도 현행 ‘한글 맞춤법’이 고시 내지는 시행되기 이전에 집필되었음을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다 아는 바이지만, 북에서와 마찬가지로 ‘<-습니다>, <보았습니다, 심었습니다>’로 적도록 규정된 한국의 현행 ‘한글 맞춤법’은 1988년 1월 19일에 당시 문교부에 의하여 고시되어, 1989년 3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⁵⁾

이 단순한 사실은 이 책의 집필 및 간행과 관련하여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 준다. 첫째로, 이 시기는 1987년의 ‘6월항쟁’의 결과로 한국에서 막 민주주의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무렵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민주화의 결과로 나온 움직임의 하나가 바로 ‘북한바로알기운동’인바, 이와 관련하여 당시에 북한의 ‘원전’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좀더 조사해 보아야 하겠지만, 예를 들어 북한에서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피바다』(1988년 11월, 한마당),⁶⁾ 『꽃파는 처녀』(1989년 1월, 열사람), 『한 자위단원의 운명』(1989년 1월, 황토) 등이 모두 서울에서 간행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8년 1월에는 ‘주체사상총서’의 한 권인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백산서당)마저도 서울에서 활자본으로 출판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언어 문제와 관련하여, 쏟아져 나오는 당시 북한의 ‘원전’들과 더불어 심각하게 제기되기 시작한 ‘언어 이질화론’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글을 위하여 dbpia, KISS, RISS에서 ‘언어 이질화’라는 키워드로 논저들을 검색해 보았는데, 1985년 이전은 각각 dbpia(0건), KISS(0건), RISS(3건)이었던 데에 비하여,⁷⁾ 1985년에서 1989년 사이에는 각각 dbpia(1985-1, 1986-0, 1987-0, 1988-2, 1989-1), KISS(1985-0, 1986-0, 1987-1, 1988-0, 1989-3), RISS((1985-5, 1986-0, 1987-1, 1988-2, 1989-5) 라는 결과를 얻었다. 물론 이 수치는 겹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양과 질에 있어서도 일정하지 않으므로 기계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들만을 가지고도 전반적인 흐름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위의 통계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간헐적으로 등장하던 ‘언어 이질화’와 관련한 논의가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였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의 담론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과 관련지어 김수경(1989)를 검토해 볼 때, 우리는 이 책이 남한의 독자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집필되었다고 판단해도 좋지 않을까 한다. 우선 김수경(1989)의 문체가 여타의 북한 문헌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종석(1999:276)도 “(이 책이)학문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비슷한 주제의 북한 문헌들에 비해 문체가 온건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이 책은, 주로 남한에서 나온 역사비교언어학적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무척이나 격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대한 ‘비난적 표현’이 거의 없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주 중립적으로 ‘이남’이란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와 짝을 이루는 용어조차도 ‘이북’을 선택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이 책은, 형식적인 면에서도 참고문헌이 제시되어 있⁸⁾는가 하면, 북한에서는 한글전용이 원칙임에도 인용이 아닌 본문에서 괄호 안에 이기는 하지만 종종 한자가 사용되고 있으며, 로마자와 키릴 문자의 노출도 서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북한에서 나온 책이라면 그 책의 이곳저곳에 반드시 박혀 있는 고딕체로 된 김일성의 ‘교시’ 또한 김수경(1989)에서는 결론 부분에만 두어 번 나오고 있을 뿐이라는 점도 무척 이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민족의 문제를 들고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시대는 모든것이 세계화,⁹⁾ 국제화하며 우주화하는 시대인데 시대착오적인 물방아간시대의 민족개념을 앞세울 필요가 어디 있는가고 반박할수도 있다.”(김수경 1989:199)라는 표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에서만 쓰이는 어휘인 ‘세계화’가 사용되고 있음도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책이 1987년의 ‘6월항쟁’ 이후 민주화 국면에 접어든 남한 사회 및 남한 사회의 ‘북한바로알기운동’ 등을 감안하면서, 남한의 독자들에게 민족과 언어의 문제를 좀더 다방면에서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하여, 집필된 것임을 말해 주는 것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그의 시도는 적어도 몇 가지 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이 책의 주요한 비판의 대상이었던 이기문 교수의 업적과 관련해서 몇 차례의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던 사실이 그것을 웅변한다. 그중 ‘고구려어와 신라어는 다르지 않았으며, 고구려어와 신라어가 다르다는 주장을 펴는 이기문 교수는 식민사관을 되풀이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학술원상의 수상자가 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 김영환(1993/2012:212-216)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이 주장은 “월북 국어학자 김수경의 『세 나라 시기 언어 역사에 관한 남조선 학계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평양출판사, 1989)에 따”¹⁰⁾른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나온 것이 심재기(1993/1998:194-199)였는데, 다음은 그 일절이다.

물론 김 교수는 이기문 선생님의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하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소견으로는 역시 비전공자의 안목에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느 한편의 학설에 치우친 나머지 다른 견해는 수용하고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진실이 이토록 영뚱한 방향으로 곡해될 수도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심재기 1993/1998:195)

위의 인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의 다름¹¹⁾을 전면에 내세운 그의 반론은 반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설교에 가까웠고, 그리하여 “김 교수께 학술적인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여 논의할 수는 없고 단지 이해에 도움이 될 몇 가지 말씀만을 드리고자”(심재기 1993/1998:195) 한다면, “야구 경기장에 농구 심판이 나가서 ‘아웃’을 선언하는 모습”(심재기 1993/1998:198)으로 희화화해 버리고 말아 결국 논쟁다운 논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밖에도 김수경(1989)에서 비판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도, 단편적이긴 하지만, 몇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김수경(1989)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이기문 교수의 제 업적과 관련해서는, 김수경(1989:12)에서 비판의 실마리가 되었던 다음 언급(이기문 1972:32)이 이기문(1998)에서는 사라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듯하다.¹²⁾

오늘의 국어가 단일언어이므로, 고대에 있어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언어가 단일했으리라는 선입견에 지배되어 온 것인 듯하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비판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이기문 교수는, 1991년 8월에 간행된 『국어 어휘사 연구』의 ‘후기’에서 자신의 1968년 논문에 대하여 “이 논문이 발표된 뒤에 고구려어에 관한 연구가 내외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어형 재구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도가 간혹 있었지만, 필자의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이 논문을 쓸 때와 별로 다름이 없다.”(이기문 1991:387)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기문(1998:50-53)에서도 기존의 견해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견해가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김수경(1989)에서 또 다른 비판의 대상이었던 김완진 교수도 김수경(1989)의 비판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부분이 있다. 다음이 바로 그것이다.

李基文 교수를 국내외적으로 유명하게 한 高句麗의 위치 문제에 대한 전망을 話頭로 삼고 싶다. 三國의 언어를 新羅語, 百濟語, 高句麗語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특히 北韓의 학자 가운데에 이 문제를 크게 과장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거니와, 공격하기 위한 논리의 針小棒大化라 할 인상이 있다. 본래 어떤 두 지역에서의 말의 차이가 방언적인 차이인가 독립된 두 언어의 차이인가를 판정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불행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중략) 언어면에서 매우 유사한 경우에도 정치적,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독립된 언어들로 다루고, 그 반면에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같은 권역 안에 있으면 한 언어의 방언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태도인 것이다. (중략) 따라서 5백년이나 6백년씩을 독립된 국가로 정립되었던 3국의 언어에 각 ‘어’자를 붙여서 부르는 것은 언어학의 관습에 조금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요, 그 사이의 차이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은 그 다음 과제에 속하는 것이다. 평자는 이 점에 있어 李基文 교수를 적극 옹호한다.(김완진 1992:155-156)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금도 이 책은, 여기저기에서 끊임없이 직간접적으로 인용이 되면서, 이른바 순수언어학적 측면에서는 역사비교언어학에 비판의 물줄기를 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도 논의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에 있어서의 민족과 언어의 문제, 언어학과 식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볼 것을 끊임없이 환기시켜 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생명력을 잃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4 남은 문제

본고에서 반드시 다루었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비교언어학이 ‘민족분열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테마는 김수경(1989)를 관통하고 있는 또 하나의 키워드라 해도 좋을 터인데, 이것은 우리가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남북이 언어를 보는 눈이 다름을 웅변으로 보여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만일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1910)의 결론 부분인 “我保護國인 한국이, 그

語에 있어서도 역시 我國語의 一方言이며 분명히 同文同語의 나라라는 事實의 一斑을 提示하여 …” “마침내 古代에 있어서와 같이 다시 同化의 實을 거둠에 이른다면 眞正 天下의 慶事라고 할 것이다.”¹³⁾를 인용하면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관계를 가장 가깝게 본 것은 金澤庄三郎(1910)이었다. 그런데 그의 見解는 당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侵略과 밀접히 결부된 것이었다.”는 이기문(1973c:15)의 언급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서론에서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 즉 언어학은 언제나 가치중립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일한양국어동계론’이 일본의 조선 침략을 합리화하는 데에 이용된 언어 이론이라면, 현재 남북한에서 연구되고 있는 언어학의 어느 한 측면은 ‘민족분열론’에 결과적으로나마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만일 존재한다면 그 모습은 어떠한지 등을 찾아내어 구체화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라 할 것이다.

주

- 1) 고노의 용어는 계통보(系統譜)이다
- 2) 이 계통도는 『河野六郎著作集1-朝鮮語學論文集』(平凡社, 1979)에 수록된 「朝鮮語方言學試巧」(272쪽)에서의 인용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책의 초판은 1945년 4월에 경성의 東都書籍株式會社京城支店에서 간행되었다. 이진호 교수에 의하여 이루어진 한국어 번역은 『한국어 방언학 시론』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 9월에 전남대학교출판부에서 간행되었는데, 번역의 텍스트로 삼은 판본은 명확한 언급은 없으나 『河野六郎著作集1-朝鮮語學論文集』에 실린 「朝鮮語方言學試巧」인 것으로 추정된다. 번역서의 8쪽 「저자의 말」에 “출신지 방언에 대해서는 친구인 이인영(李仁榮) 씨, 경성제국대학 학생인 김성칠(金聖七) 군, 오홍석(吳鴻錫) 군의 도움을 받은 것이 적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다. 1945년판에는 이인영과 김성칠은 각각 春山仁榮 및 金光聖七이라 적혀 있다. 본고에서의 인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한국어판의 것이다.
- 3) (인용자 주) 앞에서 제시한 고노 로쿠로의 『朝鮮語方言學試巧』의 계통도를 말하는데, 이기문(1973b:233)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하”여 제시되었다.
- 4) 김수경(1989:109-110)에서 직접 인용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계통도는 본문의 (나)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와 (다)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본문에서 보는 (가)~(다) 이외에 이기문(1998:53)에도 계통도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표기가 한글로 되어 있을 뿐, 그 내용은 본문의 (다)와 같다. 그리고, (나)의 계통도에 대해서는 이기문(1968:139)의 각주 37)에서 “「原始日本語-古代日本語」의 位置가 左側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 안으로 들어와 있으므로 이 기회에 訂正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 5) 이기문(1988), “머리말”, 한글 맞춤법 해설, 국어연구소.

- 6) 한국에서는 『血海 민중의 바다』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 7) 북한의 언어 문제 연구에 선편을 권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김민수(1989:153)에서도 “이질화가 가속화할 것은 분명하”나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라 말하고 있는 것도 참고가 되는데, 김민수 교수의 이 글은 원래 1978년에 간행되었던 것임이 밝혀져 있다.
- 8) 김영황·권승모 편(1996:596-597)에는 26명의 ‘박사학위논문’ 리스트가 제시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서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15편 가운데에 참고문헌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검토하고 있는 김수경의 학위논문뿐이었다.
- 9) 강조는 인용자의 것이다.
- 10) 김영환(2012:212) 주6) 참조. 이 글은 원래 <<교수신문>> 1993년 9월 1일자에 실렸던 것이라고 한다.
- 11) 김영환 교수의 전공은 언어학이 아니라 철학이다.
- 12) 이 사실은 김슬옹(2010:493)의 각주 1)에서도 지적되어 있다.
- 13) 이상은 이기문(1973c:15)의 각주 15에서의 인용인데, 한국어 번역 역시 이기문(1973c:15)의 각주 15에서 가져온 것이다.

참고문헌

- 고종석(1999), 국어의 풍경들, 문학과지성사.
- 국어연구소(1988), 한글 맞춤법 해설, 국어연구소.
- 김민수(1989), 증보판 북한의 국어연구, 일조각.
- 김방한(1983), 한국어의 계통, 민음사.
- 김수경(1989), 세나라시기 언어력사에 관한 남조선 학계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평양출판사(『고구려·백제·신라 언어연구』, 한국문화사 영인본, 1995).
- 김슬옹(2010), “삼국시대 언어의 동질설·이질설과 한국어 계통론,” 전정예 외, 새로운 국어사 연구론, 경진, 490-502.
- 김영환(2012), 한글 철학, 한국학술정보(주).
- 김영황·권승모 편(1996),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 김완진(1992), “서평; 이기문(1991), 『국어 어휘사 연구』,” 주시경학보 제9집, 주시경연구소, 149-157.
- 김하수(2005), “제국주의와 한국어 문제-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한국 언어학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미우라 노부타카·가스야 케이스케 엮음(2005), 언어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479-511(이연숙·고영진·조태린 옮김).
- 김하수(2008), 문체로서의 언어2:민족과 언어, 커뮤니케이션북스(주).
- 김형규(1953), 국어사(국어사 급 국어학사), 백영사.
- 박병채(1971), 고대국어의 연구-음운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송기중(2003), 역사비교언어학과 국어계통론, 집문당.
- 송민(1969), “한일 양국어 비교연구사”, 논문집 1, 성신여자대학, 5-93.

- 심재기(1998), 교양인의 국어 실력, 태학사.
- 이기문(1961),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 이기문(1969), “한국어형성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한국문화사 대계9-언어·문학사 (상), 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19-112.
- 이기문(1972), 개정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 이기문(1973a), “언어상으로 본 고대 한일 관계,” 신동아 1973년 1월호, 104-110.
- 이기문(1973b), “한국말의 조상,” 월간중앙 1973년 3월호, 중앙일보사, 230-236.
- 이기문(1973c),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휘비교에 대한 재검토,” 어학연구 제9권 제2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19.
- 이기문(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 이기문(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시카와 료코[石川遼子](2006), “가나자와 쇼자부로 땅과 사람 그리고 언어는 하나다,” 다테 노 아키라 편저, 그때 그 일본인들, 한길사(오정환·이정환 옮김), 161-167.
- 이시카와 료코[石川遼子](2012), “가나자와 쇼자부로와 조선어,” 고영진·김병문·조태린 편, 식민지 시기 전후의 언어 문제, 소명출판, 91-119.
- 이현희(1992), “북한의 국어사 및 국어학사 연구,” 어학연구 제28권 제3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657-685.
- 金澤庄三郎 (1910), 『日韓兩國語同系論』, 三省堂書店。
- 河野六郎 (1945), 『朝鮮語方言學試巧』, 東都書籍株式会社京城支店。
- 河野六郎 (1945/1979), 「朝鮮語方言學試巧」, 『河野六郎著作集 1』, 平凡社。(한국어판, 이진호 역 (2012), 한국어 방언학 시론, 전남대학교 출판부).
- 河野六郎 (1971), 「中国語・朝鮮語」, 服部四郎編 (1971), 『言語の系統と歴史』, 岩波書店, 303-322 項。
- 田中克彦 (2003), 『言語の思想』, 岩波書店。